

축 사

2015년, 떼제 공동체 설립자 로제 수사 탄생 100주년과 떼제공동체 설립 75주년을 깊은 마음으로 함께 기념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1년 프랑스 방문을 통해 다가온 떼제공동체의 감명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고 이어가는 정진은 한국의 수행납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속에서 떼제공동체의 수승한 모습은 한국 불교와의 깊은 인연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현대 문명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폭력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결핍은 생명의 존엄성과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종교 본연의 위치와 순수함이 더욱 필요한 시대인 만큼 75년의 진력과 성취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행복’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중심에 떼제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종교가 지녀야하는 본연의 모습을 이어가며, 종교간 화합과 평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꿈꾸신 로제 수사님의 원력이 생생한 떼제 공동체의 향기로운 미래를 손 모아 기대합니다.

2015년 8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